

스마트팜부터 푸드테크 혁신까지 글로벌 식품 트렌드 한자리서 경험

농식품부, 푸드위크 2024 개최
지난해 대비 10배가량 커진 규모
대체·신식품 등 미래 식품산업 선행
바이어·소비자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이달 20~23일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푸드위크 2024’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전시회로, 올해는 31개국·1054개 기업(1846개 부스)이 참가한다.

특히, 지난해 푸드위크(109개 기업·164개 부스)와 비교해 무려 10배가량 큰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 ‘대한민국식품대전’과 ‘코엑스 푸드위크’가 통합돼 민간합동 최대 식품 전문박람회로 확대된 것이다. 농식품부 등 주최 측은 이번 행사 방문객 수가 5만5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국내외 프리미엄 식품부터 대체·신식품, 제조자동화, 스마트유통, 팜테크까지 미래의 식품산업을 선보인다. 또 바이어는 물론, 소비자와의 만남까지 참가업체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월드푸드테크 엑스포, 베이커리페어 등도 개최된다.

전시품목으로 국내외 식품 전반, 식품원료, 가공식품, 냉장·냉동식품, 원부재료·조미료·첨가물, 간편식, 디지털·간식, 건강기능식품, 음료·차·주류, 대체식품 및 원료 등을 아우른다. 또 제조·가공·포장 기계설비를 비롯해 식품자동화 솔루션, 물류·콜드체인, 위생안전설비, 스마트팜 솔루션, 친환경



지난해 11월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엑스 푸드위크 2023’을 찾은 방문객들이 행사장 입장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경·ESG 솔루션, R&D·데이터 솔루션, 차세대 식품기술 등의 전시도 예정돼 있다.

특히, 식품, 디저트, 급식·외식, 푸드테크 등 전시관 4곳에서는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식품산업이 나아갈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공정의 미래 등이다.

정책홍보관의 경우,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태동과 발전, K-푸드로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푸드테크와 함께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푸드테크관은 유망 중소기업이 참가해, 인력부족·기후변화·지역소멸 대응을 비롯해 웰니스, 청년창업과 블루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농식품부는 20일 개막식에서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식

품 관련 행사를 한자리에 모아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발전사와 다양한 푸드테크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 소비자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기간 코엑스에서는 또 동시개최 행사 중 하나로 ‘2025 식품외식전망’이 소개된다. 식품 및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학계,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가해 국내외 식품·외식업에 대해 소비트렌드와 경영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이 부대행사는 20~21일 이틀간 오프라인과 온라인(유튜브)으로 동시에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4 월드 푸드테크 콘퍼런스, 2024 글로벌 푸드테크 기술 표준화 심포지엄 등의 부대행사도 계획돼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K-녹색산업, 실리콘밸리서 투자 유치 추진

환경부,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개최
우수 녹색기술 보유 기업 10곳 소개

정부가 국내 우수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로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국내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IR 피칭데이(K-Green Day) 개최, 현지 투자유치, 파트너사 발굴 지원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세계적인 신생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Plug N Play)가 주최하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과 연계해, 오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기관, 글로벌 투자자, 기업 파트너, 기술 기반 스타트업 등 4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플러그앤플레이는 지난 2006년 설립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현재까지 2000개 이상의 신생기업(스타트업)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업)에 투자해왔다. 서울을 포함해 전 세계 64개 지사를 운영 중이며, 연간 50개 이상의 산업별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을 개최해 스타트업 창업 및 초기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투자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9월 25일부터 7주간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교육은 미국 등 세계 주요 녹색산업 투자 시장 정보 및 전망, 발표 자료 작성

방법과 소개 기법, 기업별 투자유치 조건(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보일 국내 녹색기술은 ▲디젤매연저감장치(DPF) 방식 공기정화시스템 ▲그린수소 발생장치 ▲나노구조 우수분리막(멤브레인) ▲에너지 독립형 태양광 카메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수처리용 비소흡착제 ▲페폴리우레탄 저온해동합재생 고품질 폴리를 생산 ▲농식품 부산물로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공기중 탄소 직접 포집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환경 정화용 미생물 제제 등 10개 기술이다.

환경부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 기간 동안 행사장에 소규모로 기업별 홍보공간을 운영해 관련 기술의 홍보 영상 및 자료(리플렛) 등을 현지 투자자에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강소기업의 녹색기술이 미국 등 북미 선진국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투자까지 결실이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한전, 스마트미터링으로 글로벌 진출 가속

21일까지 ‘스마트미터링 워크’ 개최

한국전력공사는 19일~21일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로얄파크컨벤션에서 AMI 보급사업 완료를 기념하고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미래 비전을 내외에 공표하고자 ‘스마트미터링 Week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전자식 전력량계와 양방향 통신망을 통해 고객에게 실시간 전력 사용 정보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전력 계량 인프라다. 한전은 2010년 50만호에 대한 AMI 보급을 시작으로 올해 2005만 호에 대해 보급사업을 완료했다.

AMI 보급을 통해 고객들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한전은 보다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배전망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전력 데이터와 통신, 금융 등 타 데이터를 융합한 종합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돼 혁신적인 신사업모

델 창출도 기대된다.

3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위원회 발족식, 기술포럼 등을 통해 주요 정책이 협의·의결된다. , 또 국제협력MOU, 국제 컨퍼런스,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선포식, 상생협약식 등이 진행된다.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선포식에서는 ‘스마트미터링으로 Green, 새로운 에너지 세상’이란 슬로건으로 ▲전력판매에서 데이터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영역 전환 등을 통한 민간 동반성장 추진을 다짐할 예정이다.

특히 한전은 필리핀 최대 전력사인 Meralco(Manila Electric Company)와 ‘스마트미터링 기술교류 및 해외수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독일 전기·전자제품 안전성 시험·인증기관인 VDE(독일전기전자기술자협회)와는 ‘스마트미터링 공동연구 협력 MOU’를 체결, 수출형 사업모델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원산지 둔갑 소고기 15분 만에 가려낸다

농관원, 신속 단속키트 개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고기의 원산지를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소고기 원산지판별 키트’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료 채취 후 실험실 분석을 거치는 과정 없이, 단속 현장에서 바로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됐다.

기존 소고기 원산지 판별에는 시료 1건당 실험실에서 분석기간 3일, 분석비용 3만 원, 시료량 20g이 소요된 바 있다. 이번에 개발한 현장용 키트는 종전 대비 1/3 가격으로 현장에서 15분 안에 한우와 비한우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

시험연구소는 한우만이 갖는 고유한 유전자를 찾아내 유전자 증폭기술을 특허출원한 바 있다. 원산지판별 키트의 저렴한 생산과 범용적인 활용을 위해, 휴대용 유전자 증폭기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하고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게 됐다는 게 농관원 측

설명이다.

이 키트는 향후 시범운용을 마치는 대로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농관원은 아울러 지자체·생산자·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소고기 원산지판별 키트의 개발을 통해 외국산 소고기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될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쇠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단속용 원산지판별 키트는 농관원 시험연구소의 자체 연구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키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낸 연구성과이다. 지난 2021년 이후 사용 중인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키트는 시료 0.3g을 이용해 현장에서 5분 내에 판독해 낼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공공폐수처리 우수사례로 전국 수질 개선

환경부, 청주·진주·고흥군 최우수

환경부는 지난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청주시, 진주시, 고흥군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시설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0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폐수 유입률, 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 관리, 안전 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이 1차 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최우수 기관 선정 외에도 대전시, 안성시, 창원시, 안동시, 보은군, 창녕군

등 6개 지자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전년 대비 평가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시설 운영 기관인 예코비트워터, 광양시, 군위농공단지협의회 등 3곳에는 발전상을 수여한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리는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연찬회’에서 최우수 등 수상기관 12곳에 대해 환경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기관의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 및 운영기관 등에 공유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실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가 지자체 간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